

코로나19 원격 교육에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안성미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n Nursing Freshmen' College Adjustment in the Distance Education During COVID-19

Sung Mi Ah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nam Health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원격 교육에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는 2020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S시 소재의 간호대학 신입생 1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t-test, one-way ANOVA, Pearson 상관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은 연령, 입학 당시 학력, 입학 동기, 성적이었다.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이들 변수는 대학생활 적응을 37.7% 설명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원격 교육을 받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을 고려한 수업방식과 학생지도가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 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adjustment on nursing freshmen in the distance education during COVID-19. A final sample 165 nursing freshmen was selected from S city, between 31 August and 4 September 2020. Using SPSS program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Factors that influenced college adjustment age, education at the time of admission, motivation of department choice, scholastic achievement. College adjustmen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These factors affecting the college adjustment of the subjects were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37.7%. Nursing freshmen need to method of class and student guidance that take these factors into account in the distance education during COVID-19.

Key Words : Nursing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College Adjustment

*Corresponding Author : Sung Mi Ahn(pigletasm@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14,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Revised October 13,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은 고등학교와 다른 환경, 대학이라는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시기이다[1]. 대학생들의 적응을 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은 새롭게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등에 불안감과 막연함을 경험하고 있다[2]. 특히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감정 외에 입학 후 과중한 학습량과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라 느끼며 발생하는 긴장감, 간호사 면허증 취득을 위해 국가고시 스트레스 등 대학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3]. 최근 전 세계에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전례 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어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학은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입생들의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4]. 간호대학의 신입생은 대면 수업을 받을 때에도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앞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소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5] 이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과제를 지속하게 한다[6]. 학업적 요인은 대학생활에서 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으며[3, 7-9],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사고이며[10], 비판적 사고 성향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겨 사용하게 되는 개인적 성향을 의미한다[11]. 또한 비판적 사고는 간호교육의 주된 목표이며, 함양해야 할 필수적인 간호역량으로 간호대학 신입생들은 이러한 교육적 형태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12].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에 대해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뿐 아니라 학과 적응도도 높게 나타났다[13, 14]. 그리고 비판적 사고는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증진 시키는 교육은 필요하다고 하였다[13, 14].

문제해결능력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상황에 체계적인 단계에 따라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며[15], 문제해결 과정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이 비판적 사고의 성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최근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 후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이 어떠한지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은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 후 유의하게 증가하며, 두 변수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19]. 이는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이 간호대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대학생활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이렇듯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지침으로 원격 수업을 받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간호대학의 신입생은 원격 수업을 받으며 대학생활의 적응과 감염병을 함께 대응해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신입생보다 대학생활의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 신입생은 많은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과 관련된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의 정도와 이 변수들이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미래감염병의 유행과 대응적 차원에서 원격 수업을 받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전략 및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 후,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 소재의 간호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은 G*Power 3.1.9 프로그램으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0를 기준으로 최소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140명으로 나타났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동의한 총 180명 중 불충분한 답변을 한 15명의 설문지를 제외 후 165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윤리적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 시작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익명성, 비밀보장에 대해 연구자가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연구 도중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함을 알린 후 참여에 동의한 경우 자필서명을 받고 참여하도록 하였다. 자료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코드를 부여하여 연구자만 열람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Kim과 Park(2001)[2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감 8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0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10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문항별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점수가 높아질수록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Kim과 Park[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자신감 .74, 자기조절효능감 .76, 과제난이도 선호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이었다.

2.4.2 비판적 사고 성향

본 연구에서는 Yoon(2004)[2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

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문항별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점수가 높아질수록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Yoon[2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2.4.3 문제해결능력

본 연구에서는 Lee, Park과 Choi(2008)[2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의 명료화, 해결방안 모색, 의사결정, 해결책 수행, 평가 및 반영이 각 6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해결과정 수행능력은 문항별 5점 Likert 척도로 '아주 드물게' 1점부터 '매우 자주'의 5점까지 점수가 높아질수록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Lee, Park과 Choi[2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2.4.4 대학생활 적응

본 연구에서는 Jeong과 Park(2009)[2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활 적응은 문항별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점수가 높아질수록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Jeong과 Park[2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2.5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자발적인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제공하였으며,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0분 정도였다.

2.6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 사후

검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분석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총 165명으로 연령이 20-23세 113명(68.5%)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여성이 136명(82.4%), 남성 29명(17.6%)이었다. 입학 당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10명(66.7%),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 55명(33.3%)이었다. 간호학과 입학 동기는 '높은 취업률 때문에' 74명(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스로 적성에 맞아서' 70명(42.4%),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로' 21명(12.7%)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 98명(5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 56명(33.9%), '나쁜 편'이 11명(6.7%)이었다. 주관적 학업 성적은 '중' 88명(5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이 39명(23.6%), '하'가 38명(23.0%)이었다. 성격성향은 '내향적'이 111명(67.3%), '외향적'이 54명(32.7%)으로 나타났다.

3.2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을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13 ± 0.28 점, 비판적 사고 성향은 3.49 ± 0.32 점, 문제해결능력은 3.63 ± 0.55 점, 대학생활 적응은 3.19 ± 0.46 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 차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입학 당시 학력이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 대상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대상자들보다 높았으며($t = -2.627, p = .009$), 성격성향이 '내향적' 대상자들이 '외향적' 대상자들보다 높았다($t = 2.092, p = .030$). 사후검정 결과 주관적 학업성적을 '상'이라고 인식한 대상자들이 '하'로 인식하는 대상자들보다 높았다($F = 3.552, p = .034$). 비판적 사고 성향은 사후검정 결과 입학 동기가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로'와 '높은 취업률 때문에'라

고 응답한 대상자들보다 '스스로 적성에 맞아서'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F = 6.156, p = .003$). 주관적 학업성적을 '상'이라고 인식한 대상자들이 '하'로 인식하는 대상자들보다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F = 4.234, p = .016$). 문제해결능력은 사후검정 결과 '30대 이상'의 대상자들이 다른 대상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F = 3.859, p = .023$). 사후검정 결과 주관적 학업성적을 '상'이라고 인식한 대상자들은 '중'이나 '하'로 인식하는 대상자들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났다($F = 9.306, p < .001$). 대학생활 적응은 사후검정 결과 '30대 이상'의 대상자들이 다른 대상자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F = 9.424, p < .001$), 입학 동기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로'와 '높은 취업률 때문에'라고 응답한 대상자들보다 '스스로 적성에 맞아서'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대학생활 적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F = 6.807, p = .001$). 주관적 학업성적도 '상'과 '중'으로 인식하는 대상자들이 '하'로 인식하는 대상자들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F = 9.526, p < .001$). 입학 당시 학력이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 대상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대상자들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t = -2.881, p = .005$)(Table 2 참고).

Table 1. The level of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College Adjustment (N=165)

Variables	M±SD	Mini	Max	Range
Academic Self-Efficacy	3.13±0.28	1.18	4.96	1-5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49±0.32	1.63	4.96	1-5
Problem Solving Ability	3.63±0.55	1.27	5.00	1-5
College Adjustment	3.19±0.46	1.10	5.00	1-5

3.4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다른 변수 간 관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r = .372, p < .001$),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r = .515, p < .001$),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r = .562, p < .001$)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참고).

3.5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

Table 2. The level of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College Adjustment (N=16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College Adjustment	
			Mean±SD	T or F (Sheffe)	Mean±SD	T or F (Sheffe)	Mean±SD	T or F (Sheffe)	Mean±SD	T or F (Sheffe)
Age	20-23 ^a	113(68.5)	3.10±0.03	1.306 .274	3.49±0.30	2.708 .070	3.60±0.55	3.859 .023* (c>a,b)	3.12±0.45	9.424. 000* (c>a,b)
	24-29 ^b	19(11.5)	3.17±0.06		3.36±0.38		3.45±0.44		3.07±0.40	
	30< ^c	33(20.0)	3.18±0.05		3.58±0.33		3.84±0.56		3.48±0.42	
Gender	Women	136(82.4)	3.15±0.27	-1.952 .053	3.50±0.32	-0.032 .974	3.48±0.57	-1.674 .096	3.09±0.50	-1.230 .221
	men	29(17.6)	3.03±0.33		3.49±0.35		3.66±0.54		3.21±0.45	
Education at the time of admission	High school	110(66.7)	3.09±0.29	-2.627 .009*	3.49±0.33	-0.214 .831	3.58±0.55	-1.793 .075	3.12±0.46	-2.881 .005*
	Over the college	55(33.3)	3.21±0.25		3.50±0.30		3.74±0.53		3.33±0.43	
Motivation of department choice	Because of own aptitude ^a	70(42.4)	3.14±0.27	0.412 .663	3.61±0.32	6.156 .003* (a>b,c)	3.73±0.50	2.068 .130	3.33±0.45	6.807 .001* (a>b,c)
	Recommendation by patents and teacher ^b	21(12.7)	3.13±0.34		3.49±0.29		3.50±0.55		2.97±0.36	
	High employment rate ^c	74(44.8)	3.92±0.27		3.40±0.31		3.58±0.59		3.12±0.45	
Physical condition	Poor	11(6.7)	3.14±0.28	0.868 .422	3.50±0.28		3.64±0.51		3.24±0.40	2.043 .133
	Fair	56(33.9)	3.13±0.28		3.50±0.37		3.63±0.60		3.15±0.52	
	Good	98(59.4)	3.02±0.27		3.50±0.40		3.53±0.55		2.97±0.52	
Scholastic achievement	Good ^a	39(23.6)	3.17±0.22	3.552 .034 (a>c)	3.61±0.34	4.234 .016* (a>c)	3.90±0.50	9.306 .000* (a>b,c)	3.36±0.43	9.526 .000* (a,b>c)
	Fair ^b	88(53.5)	3.16±0.27		3.48±0.31		3.63±0.52		3.22±0.40	
	Poor ^c	38(23.0)	3.02±0.32		3.39±0.30		3.36±0.56		2.93±0.46	
Personality	Introverted	111(67.3)	3.16±0.36	2.092 .030	3.50±0.34	0.538 .591	3.70±0.60	.708 .480	3.17±0.45	-.599 .550
	Extrovert	54(32.7)	3.06±0.33		3.48±0.30		3.70±0.51		3.22±0.48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College Adjustment (N=165)

Variables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College Adjustment
	r(p)	r(p)	r(p)	r(p)
Academic Self-Efficacy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21** (<.001)	1		
Problem Solving Ability	.267** (<.001)	.677** (<.001)	1	
College Adjustment	.372** (<.001)	.515** (<.001)	.562** (<.001)	1

결능력을 독립변수로 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참고).

회귀분석에서 잔차의 정규분포 여부, 등분산성, 선형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잔차의 산포도, 정규 확률 그래프 확인을 하였다. 잔차는 45도 직선에 근접하고, 잔차 분포는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있었다. 다중공선성 검정을 하기 위한 공차한계(Tolerance)는 .521-.892 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20-1.855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Watson 값도 0과 4에 치우치지 않고 2에 가깝게 나타나 잔차들 사이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이 충족되어 입력방법(enter method)으로 분석하였다. F 통계값은 34.130, 유의확률은 <.001으로 유의하였으며, 대학생활 적응 총 변량의 37.7%를 설명하였다. 간호대학생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을 때, 문제해결능력이 전공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375,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210, p=.002$), 비판적 사고 성향($\beta=.194, p=.024$)까지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ollege Adjustment (N=165)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009	<.001
Academic Self-Efficacy	.234	.073	.210	3.213	.00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95	.086	.194	2.272	.024
Problem Solving Ability	.199	.044	.375	4.469	.001
R ² =.389, Adj.R ² =.377, F=34.130,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1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13 ± 0.28 점(범위 1~5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 2~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과 Byun[16]의 연구(2.99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Seong[24]의 연구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1학년이 2~4학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 교과목보다 교양과목 위주로 학습하는 1학년이 다른 학년과 비교하여 스스로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높은 것인지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인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입학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간호대학 신입생보다 전문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학력을 비교한 연구가 없어서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간호학과 입학 시 타 대학 졸업자인 '유턴 입학생'이 많아지고 있는데[25], 이미 전문적인 대학교육과 학업을 수행한 이들의 경험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성격 성향이 내향적인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외향적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외향적인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Sim과 Oh[26]의 연구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또한 주관적 성적을 '하'로 인식한 간호대학 신입생보다 '상'으로 인식하는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로 원격 수업을 받는 간호대학 신입생에게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완수할 수 있는 긍정적 자아이기 때문에 학력과 성격 성향, 주관적 성적 등을 고려한 지도가 필요하겠다. 또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그 관련성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1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3.49 ± 0.32 점(범위 1~5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1학년을 대상으로 한 Yoon[27]의 연구(3.59점), Kim[28]의 연구(4.08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간호학과에 입학한 동기가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나 취업률이 높아 선택을 한 간호대학 신입생이 스스로 본인의 적성에 맞아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보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은 간호

대학 신입생이 낮은 대학생보다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게 나타나 Kwak[12]의 연구, Kim[28]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비판적 사고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도 성취해야 하는 교육성과, 간호역량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29], 이를 위해 대부분의 간호대학에서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판적 사고 성향이 전체적으로 낮은 학생들이 소속된 간호대학의 교수진은 원격 수업 강의에 단순한 암기식보다 문제 제기 방법의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대면 상황에서 교수진은 학생지도 시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1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3.63 ± 0.55 점(범위 1~5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할 Choi와 Cho[30]의 연구(3.46점)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30대 이상 간호대학 신입생의 문제해결능력이 다른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과 관련이 없었던 Ahn과 Kim[25]의 연구, Hwang과 Chun[31]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Yang[10], Ahn과 Kim[25]의 연구와 동일하게 학업성적이 높은 간호대학 신입생이 성적이 낮은 학생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은 이러한 요소를 참고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제해결능력이 낮은 간호대학 신입생은 기존의 대면 수업보다 원격 수업 강의 방식에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1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3.19 ± 0.46 점(범위 1~5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로 2~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외[8]의 연구(3.32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Seo와 Jeong[3]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후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 관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로 원격 수업을 받은 본 연구 대상자들의 대학생활 적응은 교과목 학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기존의 연구와 같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일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학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간호대학 신입생보다 전문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이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나 학력을 비교한 선행 연구가 없어서 비교는 어렵다. 연령이 높고, 타 대학을 졸업한 간호대학 신입생이 다른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미 전공분야의 학업을 완수했던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로 보여진다. 또한 입학 동기가 스스로 적성에 맞아서 간호학과에 입학한 대학생

이 다른 이유로 입학한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다. 이는 Kim 외[8], Kwak[12]의 연구와 동일하게 대학생활 적응은 입학 동기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주관적 성적이 낮은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낮게 나타나 Kim[28], Kim[32]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대학생활 적응에 성적은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활 적응은 일반적인 부분, 관계 영역, 교과 영역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국가적 재난 상황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추가하여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의 상관관계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12, 16, 32]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아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고려하면, 먼저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 과제 수행에 있어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 자아 및 내면적 요인을 증진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지만 간호대학 신입생이 내적으로 충분히 동기화되어지고, 교과 영역에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강의법 등 대학의 노력은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이 37.7% 설명하며, 이 요인들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중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원격 수업을 받고 있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 성향보다 현실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는 간호대학 신입생들과 온라인에서 원활한 소통을 하고, 이들의 학업적 문제해결 과정을 주차별로 확인하여 피드백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가 재난적 상황, 감염병의 유행이 지속되어 간호대학 신입생이 원격 수업을 받게 되는 상황이 처음이라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하다. 이에 추후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원격 수업을 받는 가운데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 확인을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내면적 요인과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의 교과 영역 요인을 고려한 연구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대학교의 간호학과만 임의로 표집하였으며, 특수한 상황에서의 연구결과라 일반화의 한계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어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원격 수업을 받는 가운데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연령, 입학 당시 학력, 입학 동기,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둘째,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변수는 모두 대학생활 적응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 들 세 변수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7.7%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 교수자는 연령, 입학 당시 학력, 성적, 입학 동기의 개인적 요인을 확인하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필요하겠다. 또한 학생지도 시 교수자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내면적 요인과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의 교과 영역 요인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향후 국가 재난적 상황, 감염병의 유행으로 원격 수업을 받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온라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 후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S

- [1] E. M. Cho, H. I. Park & S. M. C.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Social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Freshmen's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Locality and Globality*, 42(1), 175-193. DOI : 10.33071/ssricb.42.1.201804.175
- [2] H. H. Yoo. (2020). Relationships among Self-Leadership, Self-Esteem, Interpersonal

- Competence,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Premedica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4), 639–647.
DOI : 10.5392/JKCA.2020.20.04.639
- [3] Y. S. Seo & C. Y. Jeong. (2017). The 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Social support, College lif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5(4), 1040–1047.
DOI : 10.15205/kschs.2017.12.31.1040
- [4] J. M. Lee. (2020). An Exploratory Study on Effects of Loneliness and YouTube Addiction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the Distance Education During COVID-19. *The Korea Contents Society*, 20(7), 342–351.
DOI : 10.5392/JKCA.2020.20.07.342
- [5] A. Bandura & National Inst of Mental Health. (1986). *Prentice-Hall series in social learning theory.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Prentice-Hall, Inc.
- [6] S. J. Han. (2013).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5(50), 559–566.
DOI : 10.7475/kjan.2013.25.5.559
- [7] H. J. Jung & M. J. Chae. (2018).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Academic Stres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8), 403–417.
DOI : 10.35873/ajmahs.2018.8.8.039
- [8] J. K. Kim, W. J. Kim & S. J. Lee. (2020). Correlation of Self-Efficac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7), 120–126.
DOI : 10.5762/KAIS.2020.21.7.120
- [9] H. Y. Kang. (2017).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and College Life Adaptation in Freshma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25, 77–95.
- [10] H. J. Yang. (2013).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2), 6387–6394.
DOI : 10.5762/KAIS.2013.14.12.6387
- [11] K. Y. Kim & E. J. Lee. (2016). The relationship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cess competency and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y in nurses working in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2), 451–461.
DOI : 10.7465/jkdi.2016.27.2.451
- [12] H. W. Kwak. (2018).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Solving Ability and Frustration Tolerance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8), 233–242.
DOI : 10.14400/JDC.2018.16.8.233
- [13] K. A. Shin & B. H. Cho. (2012).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1), 46–56.
DOI : 10.7739/jkafn.2012.19.1.046
- [14] N. S. Ha, S. Y. Park & M. J. Lee. (2015). A literature Review(1996–2014) Critical Thinking in Korean Nursing Education for the Era of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9), 341–349.
DOI : 10.14400/JDC.2015.13.9.341
- [15] P. P. Heppner & C. J. Krauskopf. (1987). An Information-Processing Approach to Personal Problem Solv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5(3), 371–447.
DOI : 10.1177/0011000087153001
- [16] M. Y. Kim & E. K. Byun. (2019).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Learning Motivation on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 376–383.
DOI : 10.5762/KAIS.2019.20.1.376
- [17] J. S. Kim & H. J. Choi. (2018). Effects of Capstone Design Program on Creative L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4), 406–415.
DOI : 10.5392/JKCA.2018.18.04.406
- [18] M. R. Jung & E. Jeong. (2020). Effects of Havruta Learning Method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4), 2269–2284.
DOI : 10.22143/HSS21.11.4.160
- [19] Y. M. Kim & J. Y. Yu. (2019). Influences of simulation-based education of postpartum hemorrhage care on nursing college students' critical thinking tendency communication confidence, and problem solving proces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9(6), 399–409.
DOI : 10.35873/ajmahs.2019.9.6.038
- [20] A. Y. Kim & I. Y. Park. (2001).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95–123.
- [21] H. R. Choi. (2011).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 [22] W. S. Lee, S. H. Park & E. Y. Choi. (2008). Development of a Korean Problem Solving Process Inventory for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4), 548–557.
- [23] E. I. Jeong & Y. H. Park. (200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1(2), 69–92.
- [24] J. A. Seong. (2018).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Job-seeking Stres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4), 25-35.

- [25] S. M. Ahn & K. H. Kim. (2018).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seeking Stress on Nursing Students' Career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555-565.
DOI : 10.5762/KAIS.2018.19.1.555
- [26] M. J. Sim & H. S. Oh. (2012). Influence of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6), 328-337.
DOI : 10.5392/JKCA.2012.12.06.328
- [27] J. Yoon. (2008).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 Focusing on a School Applying Integrated Nursing Curriculum.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4(2), 159-166.
- [28] M. S. Kim. (2017).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lleg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2), 184-193.
DOI : 10.5977/jkasne.2017.23.2.184
- [29] H. J. Park. (2015).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27-236.
DOI : 10.5977/jkasne.2015.21.2.227
- [30] H. R. Choi & D. S. Cho. (2011). Influence of Nurses' Performance with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Process.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17(3), 265-274.
DOI : 10.4069/kjwhn.2011.17.3.265
- [31] H. Y. Hwang & Y. E. Chun. (2019). The Effects of Project-Based Learn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Nursing Process Performance for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9(1), 243-252.
DOI : 10.21742/AJMAHS.2019.01.25.
- [32] J. I. Kim. (2018).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5), 253-262.
DOI : 10.5762/KAIS.2018.19.5.253

안 성 미(Sung Mi Ahn)

[정회원]



- 2014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관리학과(보건학석사)
- 2018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5년 8월 ~ 2016년 2월 :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 2016년 3월 ~ 2019년 12월 :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0년 4월 ~ 현재 :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핵심기본간호, 지역사회간호
- E-Mail : pigletasm@hanmail.net